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8권 제2호 2005(247~266)

기업의 재무적 및 비재무적 특성이 주거래은행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 동남경제권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최진배**

요약: 이 글의 목적은 동남경제권의 부품소재생산기업의 비재무적 및 재무적지표가 주거래은행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결과 지역의 소규모금융기관은 지역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해주는 데 기여한다는 관계적 대출이론이나 지역금융시장이론의 가설을 뒷받침해줄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비재무적 요인이 주거래은행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 의하면 전국기타가 거래적 금융을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지역영세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적 요인이 주거래은행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도 수익성과 안정성의 측면에서 비은행 금융기관과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이 다른 은행의 그것에 비해 높고 안정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은행의 지역밀착도는 강하지 않다. 즉 그것은 다른 은행과의 경쟁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영업기반은 그리 확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부품소재산업, 주거래은행, 재무적 요인, 비재무적 요인, 관계적 대출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적 및 비재무적 특성이 주거래은행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은행을 포함하는 지역금융기관이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관계적 금융의 전개여부는 지역금융기관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 존재가치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 때문에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는지 파악하기는 곤란하다.¹⁾ 이에 이 글은 부품소재생산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를 분석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주거래은행제도는 일본에서 발달된 제도로 우리나라에도 주채권은행제도(또는 주거래은행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채권은행제도가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주거래은행에 관한 연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상장기업의 주거래은행에 관한 연구도 활기를 띠고 있다.²⁾ 이 과정에서 지역금융시장의 구조를 밝히면서 개별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고 자료의 제약이라는 어려운 문제도 가로놓여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加納(2002)이 지적하듯이 신용도가 잘 알려져 있는 상장기업보다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기업일수록 주거래은행의 심사와 감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에 관한 연구는 개별 금융기관이 지역기업 나아가 지역경제에의 기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3-130022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여도를 평가함에 있어 유용할 수 있다.³⁾ 산업자원부의 보도자료(2005.1.18)에 따르면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하고 있다.⁴⁾ 부산, 경남 및 울산지역을 포괄하는 동남경제권은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이 밀집된 지역이며 부산광역시도 부품소재산업을 3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하려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금융거래실태를 밝힐 수 있다면 우리는 현실 적합하며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2003년말 현재의 자료이다.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기적으로 기업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증지원을 요청할 때에만 하기 때문에 표본기업의 일부 자료는 기준시점이 상이한 경우도 있다. 이 글은 분산분석(ANOVA)에 의하여 자료를 분석하며, 금융기관을 영업구역이나 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은행, 지방은행, 기타금융기관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전국은행 중에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지역금융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은행을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한 전국기타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을 합한 은행(이하에서는 국민기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어 이 두 은행의 주거래기업분석에 중점을 둔다. 예금은행 이외에 수출입은행, 생명보험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증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다양한 금융기관(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일부 비금융기관도 포함되어 있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타 금융기관으로 분류한다. 한편 동남경제권은 부산, 경남, 울산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세부지역별로 분석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역을 동남경제권 전체(이하 지역 전체라 한다.)뿐 아니라 부산지역, 경남·울산지역으로 세분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2. 기존논의 검토

지역금융문제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역금융시장이론과 관계적 대출이론이 그것인데, 두 이론 모두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중심 개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규명하는데 그리고 후자는 지역의 소규모은행이 어떻게 하여 전국은행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금융시장이론은 1954년 Losch가 지역간 이자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발표한 이후 지역간 이자율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었다.⁵⁾ 이 이론은 지역간 이자율 격차를 정보비용의 존재와 결부시키는데⁶⁾, 이 주장은 Moore & Hill(1982)에 의해 중심과 주변의 문제로 정식화된다. 그들은 지역을 중심지와 주변으로, 금융기관을 금융중심지의 금융기관과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그리고 금융차입자를 대기업과 소기업(및 가계)으로 구분하는데, 그들에 의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금융중심지의 금융기관은 지역의 소기업이나 가계에 자금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후자는 금융중심지에서 분리된 지역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금융시장이 이중구조(two-tier market)로 되어 있다는 이 주장은 지역금융문제가 지역의 소기업과 가계가 당면하는 자금조달상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들은 중심과 지역금융시장을 청산시키는 균형이자율수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들 이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완전성 가설의 주된 관심은 신용할당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및 그에 따른 신용할당을 지역금융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중심개념으로 삼고 있는 Porteous(1995), Dow(1990) 등의 논의가 이론적 전제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Porteous(1995)와 Dow(1990)는 정보적 거리

(information distance)를 중시하는데, 여기에는 물리적·공간적 거리, 조직상의 거리, 대출절차로부터의 거리 등이 있다. 물리적·공간적 거리를 중시하는 Porteous(1995)에 의하면 정보가 비대칭적일 경우 계약당사자들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표준화되지 않은 거래의 경우 당사자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의사소통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소통되는 정보의 유용성도 저하된다.⁷⁾ 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거나 접촉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므로 거리가 멀리 떨어진 당사자간의 거래는 소원해지게 된다(Porteous, 1995: 7). Dow(1990)는 조직상의 거리를 중시한다. 그녀에 의하면 신용에 대한 결정이 중심에 집중되면 주변에 대한 신용의 공급은 주변의 신뢰도에 대한 중심의 평가의 영향을 받으므로 전국은행 지방지점의 경우 지역대출을 꺼리는 경향을 지니며(Dow, 1990: 70), 이것은 경력구조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⁸⁾ 한편 대출규모가 커질수록 객관적인 대출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증가하는데, 대출기준은 과거의 성과와 사업 전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게 된다. 주관적 판단을 함에 있어 지점이 본부보다 우월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서 본부의 판단이 우선되게 되면 지점의 판단은 충분히 평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역기업에 대한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Dow, 1990: 93).

지역금융시장이론에서는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할 경우 지역금융계약이 나타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금융기관이 어떻게 하여 지역금융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난점을 보완하는 것이 관계적 대출이론이다. 관계적 대출이론(relationship lending)은 정보가 불투명한 소규모기업에 있어 관계적 금융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대은행은 소규모기업금융을 취급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은행-기업관계는 기업의 금융적 전망에 관한 가치 있는 개인적 정보를 발생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 정보의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적 대출은 특히 중시되고 있다.⁹⁾ 관계적 금융이 중요하게 되는 것은 소기업들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재무적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소기업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소규모이기 때문에 신용평가기관의 감시대상이 아니며 자본시장에의 접근이 곤란하다. 이것은 소기업의 경우 이들과 잠재적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대부분 설립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생기업이다. 이는 경쟁력, 신뢰성 그리고 투자기회의 종류 등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는 정도는 금융제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Petersen & Rajan, 1994).

Berger et al.(2001)은 관계적 대출 하에서 은행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요 방법으로 기업과의 오랜 접촉, 기업소유주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층위와의 접촉, 금융계에 제공한 기업의 과거의 대출과 서비스에 관한 자료, 기업의 고객과 공급자들과의 접촉, 기업의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은행의 지식(특히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신용도) 등을 제시하는데, 그들은 이러한 정보가 신규대출뿐 아니라 대출의 갱신, 추가대출, 재협상 그리고 감시 전략에 관한 추가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이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은행 또는 지역은행은 보통 지방소재 중소은행을 의미하는데 정보획득에 있어 이러한 이점 때문에 정보가 불투명한 지역 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에 있어 지역소은행의 역할은 중요하다.¹⁰⁾

관계적 대출에 의해 은행은 개인적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관계를 맺은 기간, 대출실적, 요구불 및 저축성예금 실적(이들은 현금흐름실적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등을 통한 상호작용은 은행으로 하여금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

양한 상품에 걸쳐 정보생산비를 분산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¹¹⁾ 그러므로 차입자는 낮은 이자율로 보다 손쉽게 차입할 수 있게 되는데, 은행-기업관계의 존속기간, 기업의 규모, 차입금융기관의 수 등이 이자율수준, 담보요구율, 신용의 이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¹²⁾ 한편 대은행은 대규모장벽 때문에 정보가 불투명한 소규모기업에 관계적 대출을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내부감시비용으로 Strahan & Weston(1998)이 주장하듯이 이 비용은 정보적 거리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적 대출이론은 지역금융시장 이론과 유사한 의미와 내용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금융기관의 육성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박원석(1997), 정기화 외(1998), 구재운·김희순(2001), 구재운·문호성(2004) 등은 우리나라에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서근우(2003)는 우리나라 중소기업금융에서 관계형 대출이 활용되는지 실증하였다.

그러나 지역금융의 수준에서 관계형 대출이 활용되는지를 실증한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 글에서와 같이 지역수준에서 주거래은행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최진배(2004a, 2004b)가 있다. 최진배(2004a)는 부산지역기업 전체를 표본으로 하고 있으며, 최진배(2004 b)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3. 기업의 특성과 주거래은행관계

1) 개관

표본기업은 총 2861개이며, 대부분이 본사를 동남경제권에 두고 있다. 표본기업 가운데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은 5개 기업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볼 때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

표 1. 표본기업 현황

(단위: 개)

업종	전국	동남경제권의 기업수(A)				표본의 수(B)				(I)/ 전국(%)	A/B(%)			
		계(I)	부산	경남	울산	계	부산	경남	울산		계	부산	경남	울산
27	2,478	728	383	296	49	196	111	79	5	29.4	26.9	29.0	26.7	10.2
28	12,674	2,669	1,407	1,032	230	603	323	226	54	21.1	22.6	23.0	21.9	23.5
29	14,364	3,572	1,586	1,790	196	1,095	503	516	75	24.9	30.7	31.7	28.8	38.3
30	770	28	10	18	0	3	2	1	0	3.6	10.7	20.0	5.6	0
31	5,769	832	426	332	74	192	112	63	17	14.4	23.1	26.3	19.0	23.0
32	4,722	318	16	163	39	81	33	39	7	3.6	25.5	28.4	23.9	17.9
33	2,679	316	68	133	15	62	30	26	5	11.8	19.6	17.9	19.5	33.3
34	3,534	1,082	282	625	175	351	121	176	54	30.6	32.4	42.9	28.2	30.9
35	1,205	758	147	482	129	278	107	131	40	62.9	36.7	72.8	27.2	31.0
계	48,195	10,303	4,525	4,871	907	2,861	1,342	1,257	257	21.3	27.8	29.7	25.8	28.3

주: 1) 표본기업의 계에는 본사가 동남경제권 밖에 소재하는 기업 5개가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합계와 상이할 수 있다.
 2) 업종 난의 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그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27: 제1차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조,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계 및 시계제조,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5: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업은 48,195개이며, 이 가운데 21.3%인 10,303개가 동남경제권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7, 29, 34, 35는 전국대비 점유율이 평균 이상을 상회하며, 특히 35의 그것은 62.9%로 매우 높다. 이에 반해 30, 32, 33의 점유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의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계획은 동남경제권의 부품소재산업육성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본기업이 동남경제권의 부품소재생산기업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은 27.8%이며, 29, 34, 35는 30%를 상회하고 있다. 표본의 크기로 볼 때 동남경제권 부품소재생산기업의 전반적인 금융기관거래상황을 살펴보는데 문제는 없다.

표본기업의 규모는 매우 영세하다. 즉 평균종업원 수는 20.9명이며 사무직을 제외하면 16명 정도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본기업을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1-4인 규모와 5-9인 규모가 각각 27.5%와 24.7%로 종업원 10인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52.2%를 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종업원 50인 이상인 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9.1%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지역기업의 영세성이 두드러진다. 즉 부산지역기업의 경우 10인 미만 기업이 전체의 61.6%를 점하고 있는데, 경남지역과 울산지역의 그것(각각 44.9%, 38.5%)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종업원 50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부산지역의 경우 5.7%로 경남지역과 울산지역의 그것(각각 10.3% 및 19.1%)에 비해 월등 낮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본기업은 영세할 뿐

아니라 모두 비상장기업이며 외부감사대상기업도 아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금융기관이 지역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중요성과 지역경제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 한편 由里(2003)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지역의 소규모은행은 관계적 대출을 통해 영업기반을 굳건히 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된 대상은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1백만달러 미만)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다. 표본기업의 58.0%는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글이 사용하고 있는 표본은 지역기업에 대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적합하다.

표본기업의 주거래은행 현황을 보면 주거래은행 관계가 알려진 총 2,803개 기업 중 1,942개 기업(점유율 69.3%)이 전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으며, 29.2%가 지방은행 그리고 나머지 1.5%가 서민금융기관 등 기타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비중은 중소기업대출에서 지방은행이 점하는 비중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산지역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에서 지방은행이 점하는 비중은 2004년말 현재 27.5%이다.

은행별로 보면 기업은행의 주거래기업이 27.4%로 제일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부산은행(14.9%), 국민은행(14.4%), 경남은행(14.1%)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금융기관으로 설립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표 2. 표본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1-4인	5-9인	10-20인	21-50인	51인 이상	계
부산	478(35.6)	349(26.0)	270(20.1)	158(11.8)	77(5.7)	1,342(100.0)
경남	262(20.7)	306(24.2)	317(25.0)	230(18.2)	131(10.3)	1,267(100.0)
울산	47(18.3)	52(20.2)	65(25.3)	44(17.1)	49(19.1)	257(100.0)
계	787(27.5)	707(24.7)	652(22.8)	434(15.2)	260(9.1)	2,861(100.0)

주: 1) 분석대상기업의 계에는 본사가 동남경제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5개가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합계와 상이할 수 있다.
2) 카이제곱 값 88.507, 유의수준 0.000

표 3. 표본기업의 당기매출액 규모별 현황

(단위: 억원, 개, %)

당기매출액	1미만	1-5	5-10	10-50	50-100	100이상	계
업체수	165	943	548	873	173	159	2861
구성비(%)	5.8	33.0	19.2	30.5	6.0	5.6	100.0

41.8%로 지방은행의 그것(29.0%)보다 12.6% 포인트나 높다. 부산지역과 경남·울산지역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부산지역기업의 경우 46.6%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으며, 경남·울산지역기업에서의 그것(37.7%)보다 8.9% 포인트 높다. 이는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의 비중이 경남·울산지역에서보다 높는데 주로 기인한다. 이에 비해 경남·울산지역에서는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점유율은 26.4%로 부산지역에서보다 5.2% 포인트나 높으며, 전국은행에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이하 전국기타라 한다.)의 주거래기업의 비중도 25.4%로 부산지역에서보다 3.7% 포인트 높다.

한편 부산지역기업과 경남·울산지역기업을 구분하여 이들이 각 지역의 지방은행과 주거래은행관계를 맺고 있는 현황을 보면 지방은행과 주거래은행에 있는 부산지역기업의 경우 95.9%가 부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으며, 경남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4.1%에 머무르고 있

다. 그러나 경남·울산지역기업이 경남은행과 주거래은행에 있는 비율은 81.5%이고 나머지 18.5%는 부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부산지역기업이 김해, 양산 등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사정은 점포 현황에서도 나타난다. 2004년 11월 현재 김해와 양산지역에 있는 부산은행의 점포수는 3개의 출장소를 합쳐 11개로 경남은행의 점포수 10개를 상회한다.

이하에서는 관계적 대출이론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요인이 지역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2) 비재무적 요인과 주거래은행관계

(1) 기업규모

표본기업은 대부분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니기

표 4. 본사의 지역별 주거래은행 현황

구분	전국기타	국민기업			지방	기타	합계	
		계	국민	기업				
부산	333(25.4)	610(46.6)	253(19.3)	357(27.3)	346(26.4)	20(1.5)	1309(100.0)	
경남·울산	계	434(29.1)	562(37.7)	152(10.2)	410(27.5)	470(31.6)	23(1.5)	1489(100.0)
	경남	344(27.8)	492(35.7)	131(10.6)	361(29.2)	384(31.0)	18(1.5)	1238(100.0)
	울산	90(35.9)	70(27.9)	21(8.4)	49(19.5)	86(34.3)	5(2.0)	251(100.0)
합계	767(27.4)	1172(41.9)	405(14.5)	767(27.4)	816(29.2)	43(1.5)	2798(100.0)	

주: 1) 주거래은행이 없는 기업이 있어 합계가 표본기업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지방은행 합계에는 여타 지방은행이 포함되어 있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합계가 지방은행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3) 본사가 분석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5개 기업을 제외하였다. 4) () 내는 구성비. 5) 카이제곱 값 63.712, 유의확률 0.000. 단 유의확률은 주거래은행을 전국기타, 국민, 기업, 지방, 기타로 구분할 때의 그것이다.

때문에 재무투명성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전체표본에서 종업원 50인 이상인 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9%로 규모도 영세하다. 관계적 대출이론이나 지역금융시장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들은 지역 금융기관과 거래하게 된다. 여기서는 종업원 수와 매출액을 규모변수로 하여 기업의 주거은행현황을 파악하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이 지역은행을 주거은행으로 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지역은행은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하는 것으로 또는 같은 말이지만 전국은행신용에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기업의 신용제약을 완화해주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종업원 수

지역전체를 보면 주거은행을 어떻게 구분해도 각 금융기관의 주거기업의 종업원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중비교를 해보면 유의수준 0.05에서 각 금융기관의 주거기업간 종업원평균에 차이가 존재한다. 즉 전국기타의 주거기업의 종업원평균은 26.7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지방은행의 주거기업의 종업원평균(21.9명)이다. 기업은행의 주거기업의 종업원평균(18.3명)은 국민은행을 주거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종업원평균(14.5명)과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전자가 많다. 마지막으로 기타금융기관의 주거기업의 종업원평균은 4.6명으로 제일 작다.

전국기타의 주거기업의 종업원평균이 제일 큰 것은 그것이 관계적 금융보다는 거래적 금융을 지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의 주거기업의 종업원평균이 제일 작은 것은 영세기업일수록 은행신용에 접근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타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은 은행권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에 은행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들에게서 차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¹³⁾ 지방은행의 주거기업의 종업원평균이 전국기타의 주거기업의 그것에 버금가며, 국민기업의 주거기업의 그것보다 크다는 점은 의외인데.

이는 예상과는 달리 지방은행이 지역소기업에 대한 금융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함의한다. 지방은행과는 달리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은 소규모기업과 주거은행관계 형성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최진배(2004 b)의 결과와 일치한다. 최진배(2004b)에 의하면 부산지역 일반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종업원 5인 미만의 기업에서 우위를 보이는데 반해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은 10인 이상의 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지역을 부산지역과 경남·울산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산지역의 경우 한 가지만 제외하고 지역 전체와 유사하다. 국민은행의 주거기업의 종업원 평균이 9.6명으로 기업은행의 주거기업의 그것(14.5명)보다 월등히 작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와는 달리 경남·울산지역에서는 지역전체와 분석결과가 동일하다. 지역간의 이러한 차이는 부산지역의 표본 기업이 경남·울산지역의 그것에 비해 영세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2> 참조). 이와 함께 우리는 국민은행이 부산지역에 중소기업금융전문은행인 동남은행을 합병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동남은행은 후발주자로서 부산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과 거래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일부는 국민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부산지역에 있는 국민은행의 지점 수가 다른 전국은행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¹⁴⁾ 부산지역에서와는 달리 경남·울산지역에서 국민은행의 주거기업의 종업원평균은 22.6명으로 기업은행의 주거기업의 그것(19.1명)보다 크며, 지방은행의 주거기업의 종업원평균 23.4명에 근접해 있다.

② 매출액¹⁵⁾

지역 전체의 경우 주거은행을 전국기타, 국민기업, 지방, 기타로 구분하면 은행의 주거기업간 매출액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어떤 은행의 주거기업간 매출액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다중분석을 해보면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45.9억원으로 국민기업, 지방, 기타의 주거래기업의 그것(각각 21.1억원, 27.3억원, 2.6억원) 과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은행의 주거래기업간 매출액평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국민기업을 국민과 기업으로 나누어 다중비교해보면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14.2억원으로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보다 적으며 이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다. 기업은행의 주거래기업의 매출액평균(24.8억원)과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매출액평균의 차이도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다.

부산지역에서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의 영세성이 두드러진다. 즉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의 평균매출액은 11.3억원으로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그것(33.9억원)뿐 아니라 기업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24.2억원)과도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22.5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경남·울산지역에서는 지역전체의 사정과 유사하다. 다만 다중비교분석에서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주거래기업의 평균매출액과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기업 중 부산은행의 주거래기업의 매출액 평균과 경남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와는 달리 경남·울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하였더니 부산은행의 주거래기업의 매출액평균이 경남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유의확률 0.000에서 유의하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 경남지역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기타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전체 평균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기타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이 매우 영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평균매출액은 다른 어떤 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보다 크

며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보다 크다. 이로부터 우리는 전국기타의 경우 거래적 대출에 치중하고 있으며, 기타금융기관과 국민은행이 지역 영세기업의 신용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부산 지역에서 국민은행의 기여도는 더욱 부각된다.

(2) 기업의 업력과 거래금융기관의 수

① 기업의 업력

소규모기업은 첫째, 신용평가기관의 감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 둘째, 많은 경우 설립된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생기업으로 경쟁력, 신뢰성 그리고 투자기회의 종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존재한다. (Peterson & Rajan, 1994). 지역금융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규모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금융기관이 소기업의 신용제약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의 업력(=설립년도)이 기업의 주거래은행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래기업별 거래금융기관의 수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업력이 짧을수록 기업은 자신의 정보를 금융기관에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하는 지역금융기관에 접근하게 된다. 한편 한 금융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비재무적 정보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재무적 정보에 근거하여 신용을 공급받게 되는 기업은 소수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록 다른 금융기관과 복수의 거래를 하더라도 재무투명성이 높은 기업에 비해 거래 금융기관의 수가 작게 된다.

기업의 업력이 기업의 주거래은행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면 지역전체의 경우 주거래은행을 어떻게 구분하여 비교해도 이들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의 업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지역을 부산지역과 경남·울산지역으로 구분해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최진배(2004 a)가 지적하듯이 지방은행이

영업기반을 지역에 두고 있는 이른 바 토착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서근우(2003)가 지적하듯이 그리고 위 논의에서도 확인되듯이 우리나라 은행이 관계적 대출을 활용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② 거래금융기관의 수

이어서 특정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의 거래금융기관의 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지역 전체의 경우 주거래은행을 전국기타, 국민기업, 지방, 기타로 구분할 경우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타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은 거래금융기관이 6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75% 가까운 기업이 2개 미만이라는 점이다. 이에 반해 은행의 주거래기업은 거래금융기관이 대체로 많다. 전국기타와 지방

은행의 주거래기업은 국민기업의 주거래기업보다 거래금융기관이 더 많다. 이러한 차이는 국민은행 주거래기업의 거래금융기관의 수가 적는데 기인한다.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은 61.3%가 2개 이하의 금융기관과 거래하며 78.3%는 3개 이하와 거래한다. 이에 비해 전국기타 및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은 각각 46.5%, 51.1% 및 65.7%, 71.3%이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거래금융기관을 은행과 기타금융기관으로 나누어 보면 주거래은행을 전국기타, 국민기업, 지방, 기타로 구분할 때 유의한 차이가 있다.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은 국민기업이나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에 비해 거래은행 수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국민기업과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기타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은 5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3개 이하가 대부분이다. 전국기

표 5. 금융기관 주거래기업의 거래 금융기관의 수

(단위: 개, %)

금융기관수	국민	기업	기타	전국기타	지방	전체
0		2(0.3)		1(0.1)	2(0.2)	5(0.2)
1	119(29.4)	221(28.8)	10(23.3)	189(24.6)	218(26.7)	757(27.0)
2	129(31.9)	186(24.2)	22(51.2)	168(21.8)	198(24.2)	703(25.1)
3	69(17.0)	37(17.8)	8(18.6)	148(19.2)	165(20.2)	527(18.8)
4	45(11.1)	89(11.6)	2(4.7)	107(13.9)	102(12.5)	345(12.3)
5	21(5.2)	71(9.2)	1(2.3)	63(8.2)	68(8.3)	224(8.0)
6	13(3.2)	25(3.3)		37(4.8)	30(3.7)	105(3.7)
7	4(1.0)	14(1.8)		21(2.7)	17(2.1)	56(2.0)
8	2(0.5)	14(1.8)		11(1.4)	7(0.9)	34(1.2)
9	3(0.7)	5(0.7)		7(0.9)	3(0.4)	18(0.6)
10		2(0.3)		7(0.9)	3(0.4)	12(0.4)
11				4(0.5)	2(0.2)	6(0.2)
12				2(0.3)	1(0.1)	3(0.1)
13				3(0.4)	2(0.2)	5(0.2)
14				2(0.3)	1(0.1)	3(0.1)
전체	405(100.0)	768(100.0)	43(100.0)	769(100.0)	818(100.0)	2803(100.0)

주: 1) 카이제곱 값 82.502, 유의확률 0.012. 2) () 내는 구성비.

타의 주거래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것이 거래적 금융에 치중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다른 한편 기타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이 소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것은 그들이 은행신용에의 접근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거래은행을 전국기타, 국민, 기업, 지방, 기타로 구분해도 주거래기업의 거래은행 수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경우 국민은행 주거래기업의 거래은행 수는 지방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보다 작다. 특히 국민은행 주거래기업의 경우 거래은행이 2개 이하인 기업이 접하는 비중은 61.2%로 기업은행이나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각각 53.3%, 51.1%)보다 월등히 높다. 이것은 국민은행이 특정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에 비해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거래은행 수는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그것만큼 많다. 이는 지방은행이 자신의 영업기반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 관계형 금융을 통해 축적된 비공개 정보보다는 선도 은행과의 대출거래여부 등 공개적,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여신거래에 치중”(서근우, 2003: 49)하였다는 지적을 인용해두고 싶다.

부산지역에서 부산은행의 상대적인 지위는 경남은행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경남·울산지역에서 경남은행은 부산은행에 비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경남은행 주거래기업의 거래은행 수가 2개 이하인 기업은 전체의 73.4%를 차지하는데 반해 부산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은 56.9%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카이제곱 값 29.890, 유의확률 0.001). 전반적으로 볼 때 부산은행은 국민은행이나 경남은행에 비해 더 많은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거래하는 기타 금융기관의 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주거래은행을 전국기타, 국민기업, 지방, 기타로 구분하면 유의성은 다소 떨

어지지만 차이가 나타난다(카이제곱 값 32.289, 유의확률 0.053). 은행의 주거래기업은 절반 이상이 기타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않으며 40%정도는 1-2개의 기타 금융기관과 거래한다. 그러나 기타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은 60% 이상이 1개 이상의 기타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은행의 주거래기업은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타금융기관에 의존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와는 달리 기타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은 은행신용에의 접근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 전부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금융기관 신용에 의존하게 된다. 기타 금융기관의 1인당 대출한도는 작은 편이다.

한편 주거래은행을 보다 세분해보면 보다 유의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은 기타금융기관과 거래하지 않는 기업의 비중이 60%를 상회하지만 기업은행, 전국기타,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은 50% 수준에 머물러있다. 통계적으로 유의(카이제곱 값 49.060, 유의확률 0.008)한 이러한 차이는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에 영세기업이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의 자금 수요는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충분히 크지 않으며, 많은 경우 국민은행으로부터 소요자금을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국민은행이 자신의 주거래기업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앞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은행은 영업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기업에 밀착된 경영을 강화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주거래기업이 기타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사정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비재무적 요인이 주거래은행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상의 분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국기타는 거래적 금융을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은행과

표 6. 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기타금융기관과의 거래현황

(단위: 대, %)

기타금융기관수	국민	기업	기타	전국기타	지방	전체
0	250(61.7)	390(50.8)	17(39.5)	395(51.4)	402(49.1)	1454(51.9)
1	97(24.0)	210(27.3)	20(46.5)	194(25.2)	232(28.4)	753(26.9)
2	35(8.6)	107(13.9)	5(11.6)	103(13.4)	122(14.9)	372(13.3)
3	14(3.5)	40(5.2)	1(2.3)	46(6.0)	41(5.0)	142(5.1)
4	9(2.2)	16(2.1)		19(2.5)	14(1.7)	58(2.1)
5		2(0.3)		10(1.3)	5(0.6)	17(0.6)
6		3(0.4)		2(0.3)	1(0.1)	6(0.2)
7					1(0.1)	1(0.0)
전체	405(100.0)	768(100.0)	43(100.0)	769(100.0)	818(100.0)	2803(100.0)

주: 카이제곱 값 49.060, 유의확률 0.008.

표 7. 재무분석 대상기업의 현황과 금융기관별 분포

구분	전국은행				지방은행	기타 금융기관	합계
	계	전국기타	국민	기업			
표본기업수	791	315	144	332	357	1152	

기업은행 특히 국민은행은 지역영세기업의 주거래 은행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거래기업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지방은행(특히 부산은행)은 지역기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금융시장에서 지방은행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다.

3) 재무적 요인과 주거래은행관계

(1) 수익성

관계적 대출에 관한 요인이 주거래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위의 분석에서 우리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하에서는 재무적 변수가 주거래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본기업 중에는 재무자료를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한 기업이 많아서 표본 전체(2802개)의 40% 정도인 1152개 기업만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표본기업의 재무자료도 기준연도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최근 3개년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다른 한편 기타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의 수가 극히 적어 그들의 재무적 특징을 일반화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에는 총자산순이익률, 총자본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이 있는데, 경영에 투자된 총자산의 경영효율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100)부터 살펴본다. 지역전체의 상황부터 시작하면 주거래은행을 전국, 지방, 기타 또는 전국기타, 국민기업, 지방, 기타로 구분하면 은행의 주거래기업간 총자산순이익률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다중비교를 해보면 기타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과 은행의 주거래기업

의 총자산순이익률 평균차이가 유의하다. 전자의 주거래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이 12.6%로 후자보다 높다. 주거래은행을 전국기타, 국민, 기업, 지방, 기타로 구분하면 주거래기업간 총자산순이익률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유의확률 0.037)하는데,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이 7.1%로 기업은행이나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모두 5.6%)보다 높다.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 평균은 6.0%이다. 지역을 부산과 경남·울산지역으로 구분해보면 부산지역의 경우 지역전체와 결과가 유사하다. 그러나 경남·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어떻게 구분해도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간 총자본경상이익률(=경상이익/총자본×100)의 평균차이는 총자산이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와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주거래은행을 전국기타, 국민, 기업, 지방, 기타로 구분할 경우에만 평균차이가 유의하다. 그리고 은행의 주거래기업에 한하여 다중비교를 해보면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의 총자본경상이익률(7.4%)과 기업은행과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모두 5.8%)간의 평균차이만 유의하다.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총자본경상이익률 평균은 6.5%이다. 지역을 부산과 경남·울산지역으로 구분해보면 부산지역의 경우 주거래은행을 어떻게 구분해도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간 총자본경상이익률의 평균차이가 유의하다. 그리고 다중비교를 해보면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의 총자본경상이익률 평균이 8.8%로 제일 높고 기업은행과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은 각각 5.9%와 6.1%이다. 경남·울산지역의 경우 주거래은행을 어떻게 구분해도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을 살펴보면 지역이나 주거래은행을 어떻게 구분해도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간 매출액영업이익률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이상에서 우리는 기타금융기관과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수익성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수익성은 기업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수익성보다는 낮다.

(2) 안정성

다음에는 기업의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 안정성 지표가 주거래은행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총자본×100을 의미하는데,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지역전체수준에서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간 자기자본비율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며, 다중비교의 경우에만 유의하다.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의 자기자본비율 평균은 30.2%로 기업은행의 주거래기업(25.6%)이나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26.8%)보다 높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것이 보통이다. 결국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의 높은 자기자본비율평균은 그들 규모의 영세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과 경남·울산지역으로 구분해보면 부산지역의 경우에만 주거래은행을 전국기타, 국민, 기업, 지방, 기타로 구분할 경우 금융기관 주거래기업의 자기자본비율간 평균차이가 유의하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지역 전체의 경우와 유사하다. 경남·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어떻게 구분해도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이다. 그러나 지역과 주거래은행을 어떻게 구분해도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다중비교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간 부채비율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부채비율이 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 및 단기차입금+회사채)/총자본×100으로 나타내는 차입금의존도는 금융기관 신용에의 접근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차입금의존도가 높

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전체를 보면 주거은행을 전국, 지방, 기타로 나눌 때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의 차입금의존도 평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유의확률 0.022). 금융기관별로 보면 유의확률 0.05에서 기타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의 차입금의존도 평균(11.6%)과 전국은행 및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각각 31.1% 및 33.9%) 사이에 차이가 있다. 주거은행을 전국기타, 국민, 기업, 지방, 기타로 구분할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유의확률 0.005),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의 차입금의존도 평균(28.4%)과 기업은행 및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각각 33.6%, 33.9%)의 차이는 유의확률 0.05에서 유의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타 금융기관과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일수록 차입금의존도가 낮다는 점이다. 부산지역과 경남·울산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주거은행을 어떻게 구분해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듯이 기타금융기관은 은행신용에 접근이 제약되어 있는 소기업과 주거은행을 맺고 있다. 국민은행도 소기업과 주거은행을 맺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차입금의존도가 낮다는 점에서 기타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과 다르다.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재무건전성이 높은 것은 동남은행을 인수한 후 재무건전성이 높은 기업과의 거래관계는 지속해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은 전국기타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안정성이 뒤지는 편이다.¹⁶⁾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점은 지방은행도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다면 소기업과의 거래관계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은행도 영업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선도은행의 예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대출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기타

마지막으로 여타 재무적 지표가 주거은행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지역전체의 입장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주거은행을 어떠한 구분해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을 부산지역과 경남·울산지역으로 나누어서 보아도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종업원1인당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하여 보아도 위와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자본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의 차이를 지역전체의 수준에서 살펴보면 주거은행을 어떻게 구분해도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의 주거래기업간 총자본회전율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비교를 행하면 국민은행 및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그것(각각 1.8, 1.7)과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1.5) 사이에는 유의확률 0.05에서 유의하다. 지역을 세분해서 보면 부산지역에서는 주거은행을 어떻게 구분해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며, 은행의 주거래기업간 평균차이도 지역전체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남·울산지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투자효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총자본투자효율과 설비투자효율을 지표로 하여 살펴보았다. 설비투자효율은 주거은행이나 지역을 어떻게 구분해도 주거래기업간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총자본투자효율의 주거래기업간 평균차이는 부산지역의 경우에만 유의한데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평균이 가장 높고 기업은행과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이 가장 낮다.

4) 생산연쇄에서의 지위 등이 주거은행관계에 미치는 영향

주거은행관계의 형성은 생산연쇄에서 접하는

표 8. 납품처 규모별 주거래은행현황

구분	전국기타	국민기업			지방	기타	합계
		계	국민	기업			
중소기업	571(74.3)	955(81.4)	333(82.2)	622(81.0)	627(76.7)	42(97.7)	2195(78.3)
대기업	198(25.7)	218(18.6)	72(17.8)	146(19.0)	191(23.3)	1(2.3)	608(21.7)
전체	769(100.0)	1173(100.0)	405(100.0)	768(100.0)	818(100.0)	43(100.0)	2803(100.0)

주: 카이제곱 값 25.169, 유의확률 0.000. 유의확률 등은 주거래은행을 전국기타, 국민, 기업, 지방, 기타로 구분할 경우의 그것이다.

기업의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어음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어음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이다. 즉 어음의 발행자는 생산연쇄의 뒤쪽에 위치하는 기업으로 어음의 수취기업에 비해 규모도 크고 경영상태도 양호한 것이 보통이다. 이 때 어음의 결제는 어음을 발행한 기업의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어음을 수취한 기업은 결제편의를 위해 어음을 발행한 기업과 동일한 은행과 거래하게 된다. 즉 하청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납품처(또는 발주기업)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어음을 할인할 때 은행은 어음수취기업뿐 아니라 발행기업의 신용도도 증시한다. 그리고 하청기업의 신용도는 납품처의 신용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하청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은행은 발주기업의 신용도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납품처 주거래은행이 하청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어음제도가 지니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어음대체결제제도를 도입하였다.¹⁷⁾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2000년 5월 도입)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2001년 2월 도입)가 그것이다. 이 경우에도 하청기업의 주거래은행은 납품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청기업의 매출대금은 납품처 주거래은행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이다.¹⁸⁾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기업의 생산연쇄에서의 지위가 주거래은행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로 한다.¹⁹⁾ 위 가설에 따르면 표

본기업의 주거래은행은 납품처의 주거래은행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납품처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여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1차 납품처가 다른 은행의 주거래기업의 1차 납품처에 비해 대기업의 비중이 높을 경우 위 가설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기업일수록 전국기타를 주거래은행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전체의 경우 납품처의 규모가 주거래은행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거래은행을 어떻게 구분해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위 가설과 같이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1차 납품처는 25.7%가 대기업으로 다른 은행의 주거래기업의 1차 납품업체에서 대기업이 점하는 비중보다 높다. 즉 지방은행 주거래기업의 1차 납품업체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3%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그것보다 2.4% 낮은 수준이다.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주거래기업의 1차 납품처에서 대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17-19%로 더욱 낮으며, 기타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의 1차 납품처에서 대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이상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역을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경우에도 전국기타를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납품처에서 대기업이 점하는 비중이 다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그것보다 높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경우 전자의 비중은 16.2%인데 반해 경남·울산지역의 그것은 32.7%에 이른다. 이러한 차

이는 지역별 표본기업 납품처의 규모의 차이(부산의 경우 대기업비중은 12.2%, 경남·울산지역의 그것은 30.0%이다.)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표본기업의 지역별 규모의 차이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납품처는 국민기업의 주거래기업의 그것보다 규모가 크다.

경남·울산지역의 경우는 부산지역과는 달리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납품처는 대기업의 비중이 35.5%로 전국기타의 그것(29.6%)보다도 높다(이러한 차이는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것은 국민은행이 울산·경남 지역에서 부산지역과는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즉 경남·울산지역에서 국민은행은 보다 규모가 큰 기업과 주거래은행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기업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밀착도는 지방은행에 비해 높다.

국민기업 그리고 기타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과 같이 1차 납품처의 대기업 비중이 낮으면 납품처는 하청업체의 주거래은행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며, 그만큼 주거래은행관계가 안정적일 수 있다. 이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위의 분

석과 함께 지역금융시장에서 국민기업의 지위가 안정적임을 함의한다. 한편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1차 납품처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주거래기업의 규모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규모가 큰 기업을 둘러싼 은행간 경쟁은 심할 것이므로 주거래은행관계는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어서 납품처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차이가 주거래은행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²⁰⁾ 납품처의 본사가 분석대상지역에 있지 않을 경우 지방은행보다는 전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은행은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동남경제권 밖에 본사가 있는 납품처는 분석대상지역 내에 있는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납품처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주거래은행관계의 형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납품처의 본사가 동남경제권 밖에 있을 경우 전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표본전체의 28.6%~33.7%에 이르는데 이는 납품처 본사가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경남·울산지역에 있는 기업

표 9. 납품처 본사가 있는 지역별로 본 주거래은행 현황

구분	전국	전국기타	국민기업			지방	기타	합계	
			계	국민	기업				
부산	615(71.9)	203(23.7)	412(48.2)	171(20.0)	241(28.2)	218(25.5)	22(2.6)	855(100.0)	
경남·울산	계	894(67.3)	380(28.6)	514(38.7)	153(11.5)	361(27.2)	416(31.3)	18(1.4)	1328(100.0)
	경남	670(66.7)	272(27.1)	398(39.6)	119(11.8)	279(27.8)	322(32.0)	13(1.3)	1005(100.0)
	울산	224(69.3)	108(33.4)	116(35.9)	34(10.5)	82(25.4)	94(29.1)	5(1.5)	323(100.0)
수도권	192(66.9)	82(28.6)	110(38.3)	37(12.9)	73(25.4)	92(32.1)	3(1.0)	287(100.0)	
기타	180(72.0)	76(30.4)	104(41.6)	38(15.2)	66(26.4)	70(28.0)	0(0.0)	250(100.0)	
해외	61(73.5)	28(33.7)	33(39.8)	6(7.2)	27(32.5)	22(26.5)	0(0.0)	83(100.0)	
합계	1942(69.3)	769(27.4)	1173(41.8)	405(11.4)	768(27.4)	818(29.2)	43(1.5)	2803(100.0)	

주: 1) 카이제곱 값 63.712, 유의확률 0.000. 단 유의확률은 전국기타, 국민, 기업, 지방, 기타를 기준으로 함.

2)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도의 합.

3) 기타는 위에 열거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의 점유율(각각 23.7%, 28.6%)보다 높은 편이다. 납품처의 본사가 분석대상지역 밖에 존재할 경우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비중은 물론 국민기업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비중도 평균보다 낮다. 지역별로 보면 차이가 현저한데 이는 경남·울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규모가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규모보다 큰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출실적의 차이가 주거래은행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았다. 수출실적이 많으면 수출대금의 회수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결제망을 많이 갖춘 전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일수록 국내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며, 규모가 클 것이기 때문에 전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먼저 지역전체의 경우 주거래은행을 전국기타, 국민기업, 지방, 기타 또는 전국기타, 국민, 기업, 지방, 기타로 구분하면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중비교를 하여도 전국기타의 평균수출실적은 국민, 기업, 지방의 그것과 유의수준 0.005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수출실적평균이 가장 많은 것은 물론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지역기업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경남·울산지역기업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다중비교의 결과는 지역전체의 경우와 유사하다.

4.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비재무적 및 재무적지표가 주거래은행관계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관계적대출이론이나 지역금융시장이론의 가설을 뒷받침해 줄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그리 놀랄만한 결과는 아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아직까지 관계적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금융에

관한 논의에서 이 문제를 중시하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²¹⁾ 이에 반해 생산연쇄에서 기업의 지위, 납품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수출실적 등은 비교적 일관되게 가설을 충족하고 있다.

비재무적 요인이 주거래은행관계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상의 분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국기타는 거래적 금융을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특히 국민은행은 지역영세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거래기업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지방은행(특히 부산은행)은 지역기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금융시장에서 지방은행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다.

재무적 요인이 주거래은행관계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 의하면 기타금융기관과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수익성이 높다.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의 수익성은 기업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그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수익성보다는 낮다. 주거래기업의 안정성 분석에서 우리는 기타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이 은행신용에 접근이 제약되어 있는 소기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국민은행도 소기업과 주거래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차입금의존도가 낮다는 점에서 기타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과 다르다.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은 전국기타의 그것에 비하면 안정성이 약간 뒤지는 편이지만 특별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은행의 지역밀착도는 강하지 않다. 또는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은행과의 경쟁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영업기반은 그리 확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기타와 함께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과 주거래기업관계에 있으며, 주거래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국민기업 특히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에 비해 열악하다. 국민은행 주거래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것은, 높은 자기자본비율 등

에서 보듯이, 소기업의 일반적인 재무적 특성을 반영할 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소기업대출에 특화해왔음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이 작지만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평가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소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국민은행의 비중이 특히 높는데 이는 소기업을 주거래기업으로 하고 있던 동남은행을 합병한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는 지방은행도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역의 작지만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기업을 선별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해줄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은 대기업에 대한 그것에 비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²⁾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은행은 지역기업에 대한 신용의 안정적인 공급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지역금융시장에서의 기업은행의 우위가 지속적으로 거래해오면서 취득하게 된 기업특수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 은행이 관계적 금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 금융을 공급하는 국책은행이라는 점이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얻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의 높은 비중도 마찬가지로 이해된다. 민영화되기 이전에 국민은행은 영세기업과 서민가계를 위한 금융을 담당한 국책은행이었다. 확실히 이러한 점이 지역경제에서 영업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지방은행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방은행이 현재의 지위에 안주할 수는 없다.

이 글이 지방은행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지역기업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영세기업의 신용제약을 완화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은행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론이 보여주듯이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지방은행이 전국은행에 대해 경쟁적 우위를 확립할 수 있는 요체라

할 수 있다. 지방은행은 규모면에서 영세하며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전국은행에 비하여 대출자산의 위험은 높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분산하는데 한계가 있다.²³⁾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수요자시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지역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은행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자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전국은행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계적 대출방식의 활용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소기업의 신용제약을 완화해줄기 위한 지방은행의 노력은 금융제도의 효율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Peterson & Rajan(1994)이 지적하듯이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소규모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는 정도는 금융제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주

- 1)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기간, 대출조건(이자율, 담보유무 등) 등을 포함하는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금융거래상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이러한 자료에의 접근은 극히 어렵다.
- 2) 기존의 주거래은행제도에 관한 연구는 대기업과 대은행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비상장기업의 주거래은행에 관한 연구는 소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과 주거래은행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加納(2002) 참조.
- 3)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대출시장에서는 지역경제와 융자선에 관한 충분한 정보생산과 감시, 기업지배구조 내지 경영진단·경영지도와 같은 주거래은행의 기능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湯野(2002)의 지적은 인용할 가치가 있다.
- 4) 즉 정부는 2010년까지 매출규모 2천억원, 연간수출 1억불을 초과하는 중핵 부품소재기업 300개를 집중육성하고 2010년까지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인 공급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5)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박원석(1997), pp.13-14 참조.
- 6) 자세한 설명은 Roberts & Fishkind(1979) 참조.
- 7) 나아가 그는 이렇게 말한다. “특정한 유형의 정보의 질과

유용성은 정보생산자와 정보이용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 질수록 급속히 하락한다. 정보는 그것이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용자에게 가치를 가진다. 그것의 배경 없이 정보가 유효하게 평가될 수 없다.” Porteous(1995), p.8.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진부화(information decay)라 불린다.

8)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주변부의 지점장은 승진을 위해 매우 보수적으로 된다. 주변부의 지점장의 경우 지점장으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Dow(1990), p.92.

9) 예컨대 Meyer(1998)는 “상업은행은 소기업에 대한 외부 금융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하면서 “관계적 금융이 소기업금융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은행이 관계를 통해 소기업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고 그리고 이 정보를 가격과 신용결정을 하는데 이용한다는 것이다”고 말한다.

10) 예컨대 Peek & Rosengren(1998)은 소기업 대출은 특수한 지역적 조건과 기업특수한 특성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소규모기업 대출은 지역정보집약적이며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소규모금융기관에 경쟁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Petersen & Rajan(1994), Goldberg & White(1998), Meyer(1998)도 참조.

11) 관계를 맺은 기간이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한다는 주장은 은행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업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발전시킨다는 Diamond(1991) Rajan(1992)의 주장과 일치한다.

12) 관계적 대출이 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한 정리로는 Berger et al.(2001) 참조.

13) 예컨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2004년 11월 현재 5.72%이지만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의 일반대출에 대한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취급액기준)는 각각 6.77%, 8.13%이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5년 1월호.

14) 2005년 1월말 현재 부산지역에 있는 국민은행 점포수는 95개로 다른 전국은행(우리는은행 52, 조흥은행 32, 제일은행 26)의 지점 수보다 월등히 많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료갱신방법이 기인하여 표본기업의 재무기준일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간혹 1999년도의 자료도 보이지만 대부분은 2000-2002년 사이의 자료이다.) 그렇지만 달리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자료에 제시된 가장 최근의 당기매출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6) 이는 지방은행이 중소기업에 신용을 공급할 때 선도는 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으나 하는 점을 증시한다는 서근우(2003)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17) 어음제도에 대한 논의로는 최진배(2001) 참조.

18)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1999년 11월 시행)도 어음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어음대체결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는 한국은행(2003) 참조.

19)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1차 납품처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 여기서도 분석의 편의상 1차 납품처만을 대상으로 한다.

21)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로는 최진배(2002) 참조.

22) 정승용(1997)은 실증분석을 통해 금융정책의 효과는 기업규모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통화량 변화가 있을 때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들이 생산활동이나 자금조달에 있어 큰 영향을 받는다.”(정승용, 1997: 83).

23)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최진배(2004a) 참조.

참고문헌

구재운·김희순, 2001, “한국의 지역신용경로,” 한국경영경제연구 1, pp.117-133.

구재운·문호성, 2004, “한국의 지역금융시장,” 계간 경제분석 10(1), pp.1-25.

박원석, 1997, 한국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근우, 2003,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과 과제-관계형 금융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정기화·구재운·김영룡·김일태·손용화, 1998, 지역경제와 지역산업구조의 개편방향, 집문당.

정승용, 1997, 통화정책이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효과, 산업연구원.

최진배, 2001, “어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경제평론 16, pp.251-285.

최진배, 2002, “지방금융활성화 대책과 지역금융: 하나의 비판적 고찰,” 지역사회연구 10(2), pp.115-140.

최진배, 2004a, “우리나라의 지역금융시장과 지방은행-부산지역의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22,

- pp.7-38.
- _____, 2004b, "기업규모와 재무투명성이 주거래은행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부산지역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20) pp.63-86.
- 한국은행, 2003, 부산지역 어음대체결제제도 이용현황과 시사점.
- 加藤正二, 2002, "京都のメインバンク関係 1980-2000年," 湯野 勉 編著, 京都の地域金融, 日本評論社, pp.109-167.
- 由里宗之, 2003, 리레이션십·بان킹入門, 金融財政事情研究會.
- 湯野 勉, 2002, "京都の地域金融·序論," 湯野 勉 編著, 京都の地域金融, 日本評論社, pp.1-21.
- Berger, A. N., Klapper, L. F. & Udell, G. F., 2001, "The ability of banks to lend to informationally opaque small busines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5, pp.2127-2167.
- Diamond, D. E., 1991, "Monitoring and reputation: the choice between bank loans and directly placed deb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4), pp.689-721.
- Dow S. C., 1990, *Financial Market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Canadian Experience*, Avebury.
- Goldberg, L. & White, L. J., 1998, "De novo banks and lending to small busines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pp.851-867.
- Meyer, L. H., 1998, "The present and future roles of banks in small business finan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pp.1109-1116.
- Moore C. L. & Hill, J. M., 1982, "Interregional arbitrage and the supply of loanable fund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2, pp.499-512.
- Peek, J. & Rosengren, E. S., 1998, "Bank consolidation and small business lending: it's not just bank size that matter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pp.799-819.
- Petersen, M. A. & Rajan, R. G., 1994, "The benefits of lending relationships: evidence from small business data," *Journal of Finance* 49, pp.3-37.
- Porteous, D. J., 1995, *The Geography of Finance: Spatial Dimensions of Intermediary Behavior*, Avebury.
- Rajan, R. G., 1992, "Insiders and outsiders: the choice between informed and arm's-length debt," *Journal of Finance* 47, pp.1367-1400.
- Roberts R. B. & Fishkind, H., 1979, "The role of monetary forces in regional economic activity: an econometric simulation analysi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9, pp.15-29.
- Strahan, P. E. & Weston, J. P., 1998, "Small business lending and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banking industr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pp.821-845.

접수 2005년 4월 11일

심사완료 2005년 5월 10일

The Effects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Factors on the Formation of Main Bank Relations of Parts and Material Industry in Pusan-Kyungnam Region*

Jinbae Choi**

*** Professor, Digital Business Department, Kyungsoong University
(jbchoi@ks.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a firm's financial and non-financial factors on the relationship formation with its main bank in the industry of parts and material in Pusan-Kyungnam region. The results, out of accordance with the relation-banking or regional financial market perspective, do not support the hypothesis that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ould be useful for decreasing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small and medium firms in the region. The analyses about the effects of non-financial factors on the formation of main bank relations show that while Kookmin Bank and Industrial Bank play important roles as main banks of small businesses other national banks put emphasis on the transaction lending. And the analyses about the effects of financial factors show that firms having main bank relations with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nd Kookmin bank are more profitable and stable than firms having main bank relations with other banks including local banks. On the whole it seems that local banks are not making a commitment to the regional economy and their operational grounds are not strong enough.

Keywords: parts and material industry, main bank, financial factor, non-financial factor, relation banking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KRF-2003-042-800221)